

통권 제84호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http://cafe.gongdong.or.kr/siksikan>

함께 크는 우리 아이



여는 글/03
교육평가 및 교육계획/05
터전소식/26
게릴라 인터뷰/29
공동육아를 떠나며/32
편집후기/33
아이들 사진/34

2012. 1

함께 크는 **아이**, 더불어 성장하는 **부모**, 나누며 사는 **사회**

아이들의 해맑은 **꿈**과 **미래**를 위해

부모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은

살아있는 생명인 우리 아이들에게 열려 있는 세계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로
1995년 8월에 개원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육이 삶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치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마음껏 뒹굴고 놀면서
자연의 생명력을 몸으로 느끼게 하고,
생활 안에서 배우고,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차별 없이 평등하게 어울리고 이웃과 더불어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사와 부모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커다란 삶의 놀이터'이자
'열린 공동체'가 바로 대구 공동육아 협동조합
'씩씩한 어린이집'과 '해바라기 방과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64-6
053-791-6879(씩씩한 어린이집)
053-793-6879(해바라기 방과후)
<http://cafe.gongdong.or.kr/siksikan>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새애의 소망

자연의 변화, 마음의 변화, 관계의 변화

변영숙(조합장, 해바라기 장범, 씩씩한 장민 엄마)

꽃 - 김다희

꽃들도 이제 죽는다.

가을꽃이 죽는다.

이제 겨울이 되니까

눈꽃이 활짝 피어나려고

가을꽃이 죽는다.

빨리 함박눈이 많이 내려서

눈꽃이 활짝

피어났으면 좋겠다.

-푸른 숲, 김용택 엮음.

섬진강 가 작은 분교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로 재직하셨던 섬진강 시인 김용택 씨가 그곳의 학생이었던 아이들의 시를 묶어 시집을 냈습니다. 시집 제목도 참 예쁜데, <달팽이는 지가 집이다.(푸른 숲)>입니다. 그 중에서 초등학교 3학년이던 다희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보통 도시의 아이들은 꽃을 대상으로 시를 쓰라고 하면, “화려하다. 아름답다.”라는 내용들을 씁니다. 사실 꽃을 잘 관찰하지 못한 것이지요. 꽃을 직접 키우지도 않고, 특정한 꽃을 계속 관찰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아이들은 지금 내 눈 앞에 있는

꽃의 아름다움이나 화려함들만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시로 나타내고 맙니다.(물론 그것도 훌륭한 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삶에서 나온 시가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다희는 “예쁘다. 아름답다. 화려하다.”는, 지금 이 순간에만 눈에 보이는 것을 적지 않습니다. 다희는 사시사철 학교를 오가면서, 또는 집에서 일하면서 항상 꽃을 봅니다. 봄이면 화려하게 피고, 여름이면 무성한 잎이 생겼다가, 가을에는 그 화려한 꽃들도 죽게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꽃이 죽어서 실망도 했겠지요?? 하지만 이내 자신의 마음을 희망으로 돌릴 줄 압니다. 겨울에는 함박눈이 내려 눈꽃이 피는 걸 알거든요. 그건 그 아름다움을 눈으로 가슴으로 많이 봐 왔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순환이라는 걸 몸으로 느끼면서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어른들의 설명이 끼어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아이들도 다희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신의 눈 앞에 보이는 것들만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아이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면서 자연의 변화를 몸으로 가슴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니다. 그래서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의 변화도 같이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도시에서 이런 욕심을 낸다는 것 자체가 이상적이기는 합니지만 공동육아를 하면서 일부나마 그것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더한다면 자연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변화들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접하면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큰 욕심을 낸다면 저 자신도 그런 자연의 순환이나 사람들 사이의 변화라는 기운들을 몸으로 가슴으로 느끼면서 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억지스럽지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살고 싶습니다. 다소 강물로 흐르다가 힘든 고비도 있겠지만, 그 고비는 또 옆으로 돌아서 흐르면 되겠지요?

강을 따라 흐르면서 그 자연의 풍경들을 물속에 고스란히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강이라고 할 수 없는 작은 개울물 정도 밖에는 안 되겠지만, 사람들 사이를 그렇게 흐르고, 산이나 들판 사이를 그렇게 작게라도 흘러서 바다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공동육아 안에서도 멈추지 않고, 흐르는 강물이 되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라도 마음의 긴장을 하지 않으니, 멈

춥니다. 생각도 고정되고, 몸도 부어 살이 되고요...

할머니가 나에게 잘했다고 칭찬해주셨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기거나

좋은 것을 손에 넣으면

무엇보다 먼저 이웃과

함께 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말로는 갈 수 없는 곳까지도

그 좋은 것이 널리 퍼지게 된다.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포리스트 카터 지음, 아람드리 미디어)에서 할머니의 말씀

<내 마음이 따뜻한 날들>을 읽으니 진짜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올 한 해 이렇게 공동육아의 이웃들, 그리고 학교에서 만나는 나의 이웃들, 또는 어딘가에서 만나게 될 나의 이웃과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나눠 먹고, 좋은 술이 있으면 전화해서 만나 같이 한 잔씩이라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씩씩한 어린이집 2012년 1월 교육계획

정현주(씩씩한, 아침)

- 주제 : 새해가 되었어요.
- 세시와 절기 : 소한, 대한, 설날
- 새노래 : 설날, 떡국 한 그릇 똑딱
겨울 물오리
- 전래놀이,전래동요 : 추워라 추워라
춤대장

아침 일찍 일어나
예쁜 새 옷을 입고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큰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어른들께 차례차례 세배를 하고
맛있는 떡국 한 그릇 똑딱

설날

-
1.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곱고 고운 댕기도 내가 드리고
새로 사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
 2. 우리 언니 저고리 노랑저고리
우리 동생 저고리 색동저고리
아버지와 어머니 호사 내시고
우리들의 절 반기 좋아하세요

떡국 한 그릇 똑딱

백창우 시,곡

떡국 한 그릇 먹고
나이 한 살 먹고
떡국 두 그릇 먹고
또 한 살 먹고

겨울 물오리

얼음 어는 강물이 춤지도 않니?
동동동 떠다니는 물오리들아
얼음장 위에서도 맨발로 노는
아장 아장 귀여운 새아
나도 이제 찬바람 무섭지 않다
오리들아 이강에서 같이 살자

■교사회 일정

출근

7:30 벚꽃 / 8:30 체리 / 8:40 나비
9:00 보리 / 10:00 머루, 아침

교육 및 회의

9(월)~2/3(토) - 나비 안식월
13(금),14(토) - 겨울 교사대회
27(금) - 교사 긴 회의
30(월) - 교육평가

토요근무
21(토)-아침

19(목) - 졸업 여행
20(금) - 강정 만들기

행사

2~7(월~토) - 겨울방학
9(월) - 안승우, 이서영 신규 등원
17(화) - 만두 만들기

※ 1월 중 얼음 지치러 가도 좋을 것 같고
머루와 보리가 음악회를 합니다. ❄️

씩씩한 1월 활동 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
1주	2~8 겨울 방학 (6일 소한)					
2주	9 새노래	10 방모듬	11 전체모듬 대동놀이	12 우리모두 즐거운 날	13 먹거리 교육	14
	김지호 생일	박채희 생일	자유활동	연령별 활동	자유활동	
3주	16 전래놀이	17 방모듬 만두 만들기	18 전체모듬 대동놀이	19 우리모두 즐거운 날 (7세 졸업 여행)	20 강정만들기	21 토요근무 (아침) (대한)
	차모듬	자유활동	텃밭활동	연령별 활동	자유활동	
4주	23~24 설날 연휴		25 전체모듬 대동놀이	26 우리모두 즐거운 날	27 안전교육	28
			자유활동	연령별활동	자유활동	
5주	30 전래놀이	31 방모듬				
	차모듬	방별활동				

꽃마리방

12월 교육평가 및 1월 교육계획

이희연(씩씩한, 머루)

♣ **방구성원** : 박성희, 박채희, 송하선, 신차람, 오은준, 이상화

12월입니다. 찬물에 손발이 트고, 찬바람에 불이 붉어지는 겨울입니다. 겨울 노래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김희동 선생님의 ‘꽃들’입니다. 노래 마지막에 ‘꽃들 꽃들 씨앗 되어서 겨울잠을 자겠지. 나도 너를 기다린다. 가만가만히, 가만가만히.’라는 노랫말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기 위해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 겨울. 꽃마리방 네 살 친구들도 다섯 살 멋진 언니가 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충우돌 이야기 한 번 들어 보시겠어요?

♣ **나들이**

11월 29일, 새로운 나들이 경로를 개척하기 위해 아침과 함께 산딸기 언덕으로 갔습니다. 나들이를 떠나기 전 밖으로 나갈 때의 유의점을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가지 않고 앞으로 먼저 달려 나가면 터전으로 돌아오기로 얘기했지요. 몬테소리를 지나 연못으로 막 들어설 때쯤 상화와 하선이가 먼저 앞서서 달려 나가, 아침과 함께 터전으로 돌아왔습니다(나오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성희, 은준, 차람, 채희와 함께 나들이를 계속 갔습니다.

연못에서 낚시하는 아저씨가 계셔서 천천히 조용히 움직이고, 좀 더 걸어 산딸기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청설모가 보였습니다. 나뭇잎을 입에 물고 있던 청설모가 한참 서성이다가 나무를 타고 올라 이리저리 옮겨다녔습니다. 청설모가 움직이는 걸 조용히 잘 지켜보았습니다. 흔치 않은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하며 돌아왔습니다.

12월 6일, 오전에 나들이 회의를 하고 놀이터를 가기로 정했는데 밖에 나와 보니 비가 와서, 가까운 연못가로 장소를 바꾸었습니다. 연못으로 가는 길을 조잘조잘, 재잘재잘 이야기를 나누며 갔습니다. 나들이를 갈 때 꽃마리만의 평화로움이 있어요. 언니들처럼 뛰어가지 않고,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 나눌 때의 유쾌하고 따스한 분위기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포도밭 옆에까지 가서는 빵칼로 냉이를 썰었습니다. 딱딱한 바닥을 칼로 썰고, 손가락으로 후벼서 썰었습니다. 냉이가 생긴 모양을 가르쳐 주자 “이것도 냉이야?”, “이거 맞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12월 13일, 양지꽃밭이 환주네 집으로 놀러 가고 남은 방들은 나들이로 함께 화요시장을 다녀왔습니다. 한참을 걸어 시장에 도착하니 군밤을 굽는 아저씨가 이쁜 사람들은 군밤 하나씩 받으라고 하셔서 아이들이 맛있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이터로 가는 길에 홍삼사탕도 받고, 떡도 받고 시장에 계신 분들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화요시장은 신기하고 볼 것이 많아서 참 좋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여러 어른들께 사랑 받는 느낌을 얻게 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쁘다고 말씀해 주시고, 머리 한 번 쓰다듬어 주시고, 웃어 주시는 좋은 기운들이 느껴지니까요. 간식을 두둑하게 먹고 왔습니다.

12월 14일, 수요일이라 전체 나들이를 갔

습니다. 증심사쪽 등산로 입구에서 실컷 놀다 왔습니다. 길에 들어서자 하얗게 서리가 내려 있었습니다. ‘예쁘다’는 이야기도 하고, 서리 내리는 상강 절기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좀 더 올라가 묘지 근처에서 놀았습니다. 나뭇잎을 긁어 모아 축하한다며 머리에 뿌리고 놀기도 하고, 남자아이들은 칼싸움도 하고, 여자아이들은 미장원 놀이도 했습니다. 햇살이 따스해서 좋았습니다. 실컷 놀고 돌아오는 길에 상화와 지웅이가 길목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웅이가 가지고 놀던 작대기를 잠시 둔다고 위머와 함께 챙겨두었는데 그것을 상화가 가지고 놀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지고 놀면 됐는데, 상화가 나무의 겹가지를 부러뜨렸고, 새총 만들려고 특별히 챙겨 뒀던 나무를 부러뜨려서 지웅이는 이것을 가장 속상해 했습니다. 내 것을 부러뜨렸으니까 상화가 가지고 놀던 것도 부러뜨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산에 나뭇가지가 많으니 누가 챙겨 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놀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부러뜨릴 수도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웅이도 이러한 상황을 다 이해하지만,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은 쉽게 풀어지지 않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끼고 소중히 하는 것이 잘못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마음이 아픈 것은 참여찌 도와 주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다른 새총용 나뭇가지를 찾아서 가져 오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나는 왜 이것이 화가 날까? 내 마음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며 돌아왔습니다.

12월 19일, 은탑 놀이터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가는 길에 은준이, 하선이, 상화 이렇게 셋이서 장난치고 오느라 자꾸 뒤쳐졌습니다. 다독다독해서 은탑놀이터에 도착했습니다. 하선이와 차람이, 성희 이렇게 돌아

가면서 그네를 타고, 상화와 은준이는 미끄럼에서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다 같이 미끄럼을 타게 되었는데, 은준이와 상화가 우리가 먼저 놀고 있었다며 회오리 미끄럼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타고 놀자, 아니면 놀이에 끼워 달라, 이 미끄럼이네 거냐, 네가 만들었냐 얘기하다 결국 은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이를 거야!” 하하, 은준이의 폭탄 발언. 왜 그리 웃음이 나던지요. 속으로 웃고 다독거리서 돌아왔습니다. 오는 길에도 하선이, 상화, 은준이 이렇게 셋이 얘기하고 같이 적을 무찌르고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남자 친구들 셋이서 참 잘 놀았습니다.

♣ 마주 이야기

12월 14일 : 나들이를 나가서 차람이와 채희가 미장원 놀이를 하며

채희 : 빛으로 안 아프게 해 드릴게요.

차람 : 여기 좀 빚어 주세요. 뻤다, 뻤어요. 머리 파마 좀 해야 예뻐요. 온 사람들 다 예쁘다 해요.

12월 15일 : 목요일 아침이 꽃마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차 마실 때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채희, 차람이가 찻잔이 똑같고’, ‘성희, 은준, 하선이 찻잔이 똑같다!’ 상화는 혼자 다른 찻잔인데 ‘꽃이 예뻐서 골랐다.’ ‘다음에는 내가 저 잔에 마실란다.’로 이어지다가 ‘우리 오빠 힘세다.’ ‘우리 아빠가 더 세다.’ 등의 끝없는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12월 21일 : 낮잠 자고 일어나서 옷을 갈아 입고 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하선이가

소 인형을 안고 왔는데 일어나서 종이 블록을 가져와 집을 지어 주고 있었습니다. 차람이도 함께 놀았습니다.

하선 : 나는 엄마야.

차람 : 나는 형아야.

머루 : 하선이가 아빠 아니야?

하선 : 아빠는 담배 피. (소리치며) 아기집 다 만들어 가.

차람 : 내가 블록 더 가져 올까?

하선 : 이거 아기집이야. 머루, 아기가 밥 먹어. 차람아, (블록) 더 갖고 와.

차람이가 머뭇머뭇하자, 옆에서 다른 놀이 하며 놀고 있던 채희가

채희 : 그러면 내가 갖고 올게. (갖고 와서)

하선아, 나도 같이 할까?

하선 : 응.

채희 : 차람아, 이거 넘어져. 이거 이렇게 벽 둘할까?

셋이 : (부서진 걸 고치고) 됐다!

그 사이 은준이, 상화가 칼싸움 놀이하고 노는 걸 보던 하선이가 같이 밖으로 달려 나가고, 아기집의 한 쪽 벽이 무너져서 차람이와 채희가 고쳤는데 또 넘어졌습니다.

채희 : 하선이한테 혼나겠다!

차람 : 하선이한테 혼나겠어. 빨리.

채희 : 으, 됐다 됐다. 우리 신기하게 만들까?

은준 : (큰 목소리로) 나도 하자!

얘기하고 은준이는 다시 방을 왔다 갔다 뛰어 놀았습니다.

채희 : 우리가 만든 건데 재들(상화, 은준)이 자꾸 와서 넘어지잖아.

차람 : 쭈쭈 많으니까 내가 줄게.

하선 : 쭈쭈 내가 많이 줘. 거기 똥 누는 데야. 많이 주면 똥 많이 뉘. (블록) 넘어져서, 아 괜찮아, 괜찮아.

채희 : 우리가 안 만들면 되잖아.

차람 : 그래, 맞다. 하선.

채희 : (뛰어다니는 은준이와 상화에게) 우리 농장 만드는 데 왜 자꾸 들어오냐고?

은준 : 우리도 들어오면 안 되냐?

하선이는 은준이 상화랑 함께 뛰어 다니면서 놀고, 아기집은 차람이와 채희가 블록을 이리저리 옮기며 새로 집을 지어 만들고 있었습니다.

채희 : 여기 한 개 더 놓자.

차람 : 채희야, 그거 뚜껑이야. 칼, 칼 여기 있다.

하선 : (상화, 은준이랑 같이 놀며) 덤블비, 옵티머스 프라임!

차람 : (소한테) 똥 응가할 때 여기서 뉘야 돼.

채희 : 아, 배 불러. 배 불러 할 때 요렇게 소야.

차람이와 채희 둘이 소 인형을 가지고 놀자, 하선이가 방에 들어와서 보고

하선 : 내가 먼저 발견했어.

채희 : 그거 니가 갖고 있어야지.

차람 : (채희에게) 우리 다른 동물하자~.

♣ 낮잠

낮잠은 하루 중 준비하기가 가장 바쁜 시간인(점심 먹고, 양치하고, 옷 벗고, 눕는 것까지) 또 가장 평화로운 순간입니다. 요즘에는 잠자기 전 한 5분 동안 꽃마리들의 춤추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불 위에서 이리저리 다니며, 혹은 제 자리에서 ‘평가평가~’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춥니다. 궁둥이를 요리조리 흔들고 팔을 흔들흔들하면서 춤을 추니, 지켜보고 있으면 웃음이 절로 납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서인지 아이들이 일어나

는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먼저 일어나서 놀던 상화, 채희, 은준이도 요즘은 이불 속에 누워 있는 일이 많습니다. 터전 보일려는 힘이 드는지, 근래 방바닥이 미지근한 정도로만 따뜻하게 해 줘서 아이들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어 줄 때가 많습니다.

19일이 차람이 생일이었습니다. 11월 수아랑 규언이가 생일을 맞을 때 꽃마리 생일도 빨리 왔으면 했습니다. 생일을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과 카드를 쓰고 준비하는 아이들 마음이 좋아서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내일은 미리 당겨서 하는 은준이 생일도 있네요.

며칠 뒤면 새해입니다. 2012년 꽃마리가 다섯 살 형님이 되는군요. 또 두 달이지만 승우, 서영이 새로운 두 친구도 맞이하게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며, 새해를 준비하는 다짐을 하고 1월을 맞아야겠습니다.

문득, 한 생명이 우주보다 귀하다는 우동기 교육감의 말이 떠오릅니다. 그 말을 한 취지와 상관없이, 말의 온전한 뜻을 마음에 되새겨 봅니다. 이 같은 일이 다시 없기를 희망하면서요. ☞

별꽃방

12월 교육평가 및 1월 교육계획

조윤정(씩씩한, 체리)

★ 방구성원

5세- 김희영. 성도연. 최영윤

6세- 김민소. 박찬종. 박연수. 박주하.

7세- 신다안. 최지웅

새로운 희망 속에서 시작한 2011년이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할 때가 되어 갑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12월에는 항상 분주함과 차분함이 함께 하는 듯합니다. 한해를 향해 힘찬 달음질을 하는 동안 우리 아이들은 부쩍 자랐고 한층 더 대견스럽고 의젓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자라준 우리 썩씩이들에 비해 그동안 교사로서 해왔던 교육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알차고 푸근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호~’ 하면 뽀얀 입김이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겨울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따뜻한 보금자리, 따뜻한 옷, 따뜻한 먹을거리가 있어 참 다행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춥고 굶주림에 떨고 있는 소외된 불우한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우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이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직접 사랑 나누기를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사랑을 나누면서 아이들은 아름다운 세상, 이 세상은 참 즐거운 곳이란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눔 행사에 참여하거나 구세군의 빨간 자선냄비에 용돈을 나누어 주는 일들을 아이들과 함께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랑의 열매를 가슴 옷자락에 달고서 뿌듯해하고 기뻐할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하니 어느새 제 입가에 웃음이 한가득 번져 있습니다.

한 장 남은 달력이 아쉬워 꼭 잡고 싶은데 시간은 아이들 마음과 같이 하루하루 훌쩍 지나가 버리네요. 추운 겨울을 녹일 수 있는 따스한 시간들 되시고 저물어가는 2011년을 즐거운 마음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 [포레모임]- 우리 모두 즐거운 날

수아가 꿀을 한 봉지 들고 와서 물개방과 모듬하면서 나누어 먹자고 한다. 다안이도 우즐날이 되면 “아이들과 나누어 먹고 싶어” 하면서 과일을 가져오곤 한다.

선화어린이집과의 장애통합활동이 끝났다고 좋아라 하는 모습에서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조용히 물어 보았다. 좋아라 하는 모습에서 급 진지 모드로 들어가면서 약간의 인터뷰성 멘트를 날린다.^ ^

다안 - 그냥,,,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아졌어.

유민- 음,,, 그 애들 좀 못생겨서.... 하지만 괜찮았어.

수아- 다른 애들이랑 노는 게 힘들었지만 좋아 졌어.

장민- 아이들이 잘 뛰어 놀지 않아. 그리고 산 나들이 때 위험한 걸 잘 몰라. 그래서 걱정 됐어.

지웅 - 아이들 건강공원에서는 잘 달리던데...헤헤

하민이는 뒤늦게 혼자 와서 “나는 그 애들이 괜찮았어. 난 아무래도 좋아” 이야기를 전한다. 아이들 나름 선화아이들이 걱정이 되어서 애가 쓰였던 마음이 느껴졌다.

김장준비로 텃밭의 배추도 제일 많이 뽑고 마늘 까기도 이틀 동안 열심히 해서 터전의 형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새총 만들어 쓰기, 물감놀이등 하고 싶은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점심시간에는 별꽃방에서 7세들만 따로 밥을 먹기를 원하는 등 우즐날을 맘껏 즐기고 싶어 했다.

하루는 점심을 일찍 먹고 ‘교보문고’에 책을 보러 갔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어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내 적응하는 모습이다. 마음

에 드는 책을 골라 보고 흥미롭다며 돌아오려고 하지 않아 다음에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서 돌아왔다. 오며가며 지하철역에서의 그림과 사진전시도 재미있는 볼거리였다. 시지이마트 안 ‘고산 어린이도서관’에도 책을 보러 갔는데 공공예절도 잘 지키고 터전에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의 7세들을 볼 수 있다.

★ [최지웅집 놀러가기]

지웅 어머니의 따뜻한 배려와 지호 어머니의 차량아마로 지웅이집 나들이를 편하게 갈 수 있었다. 별꽃방 아이들도 신났지만 지웅이가 제일 신난 듯 했다. 자기집 처럼 편하게 노는 모습에 보는 사람도 편안해지는 느낌이었다. 너무 편안해서 안방 침실에 나란히들 누워 있는 모습,,, 침대 위를 구르는 모습은,,, 예구구,,,애들아,,,

지웅 어머니의 맛있는 솜씨로 볶음밥을 해주셔서 아이들 정말 맛있게 먹었다. 과일 샐러드도 일품이었다. 이방에 우르르~ 저방에 우르르~ 사이좋게 한참을 논다. 바깥 날씨도 따뜻하고 좋아서 일명 ‘재미있는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다가 낮잠시간도 잊었다. 아이들 낮잠을 못자서 인지 눈 밑 다크써클이 입술까지 내려온 듯,,, 예궁,,

그래도 너무 즐거운 긴 나들이였다고 한다.

★ [유자청 · 메주 만들기 · 김장 담그기]

유자청 만들기

제비꽃방은 문경이집 놀러가고 양지꽃방은 놀이터 가고 꽃마리방은 방앗간에 쌀 빵으러 가서 별꽃방만 유자청 만들기를 한 번

더 하게 되었다. 얼마 전에 해봐서인지 제법 능숙한 솜씨로 과육과 씨를 발라내는 모습이다. 채썰기도 잘 한다. 민소는 깍뚫썰기를 해서 아이들이 모두 웃기도 했다.

메주 만들기

푸~욱 잘 삶긴 메주콩을 절구에 콩콩 짚어서 우유곽 안에 랩을 씌우고 그 속에 꼭꼭 눌러 담아 랩을 쏘옥 당기면 작고 귀여운 미니 메주가 모양이 잡혀 나온다. 희영이, 도연이는 메주콩 맛이 고소하다며 만들기 보다는 맛보기에 더 즐거운 모습이다.

김장 담그기

주말 보낸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 김장 하러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하더니만 어깨 너머로 본 것이 실력 발휘하는데 제대로이다. 영윤이 배추를 거꾸로 들더니 양념을 칠한다. 좀 해본 솜씨이다. ㅎㅎ 다안이 민소도 손끝이 야무지다. 한포기를 이내 버무리고 또 하고 싶다고 기다리고 있다. 희영이, 도연이 배추 받고 기쁜 표정이긴 한데~ 결국 다안이 민소가 옆에서 도와준다. 노오란 아기 배추잎을 한쪽씩 떼어 빨간 양념을 살짝 묻혀 맛보는 재미도 느껴 보았다.

별꽃방의 이모저모

1층 거실에 사방치기가 인기폭발이어서 2층 별꽃방에도 사방치기 줄을 그었는데 한달 내내 인기몰이를 이어 간다. 처음에는 “아웃이네, 아니네” 많이도 다투더니만 이제는 제법 안정적이다. 낮잠에서 눈 뜨자마자 뜨개질을 한다고 한방가득 앉아 있는 모습을 볼 때면 흐뭇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 한 사람씩 완성해 갈 때 마다 감동스럽기도 했

다. 이제 뜨개질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든 듯한데 이제 시작하려고 실을 가져오는 아이도 있다^^

요즘 들어 자주 편을 먹고 윗놀이도 하는데 무척 재미있게 하고 있는 놀이이다. 또한 선생님들이 만들어 준 동물인형으로 놀이는 더 풍성해지고 있어서 아이들의 놀이를 지켜보고 있으면 보는 사람의 마음도 즐거워진다.

감기에 폐렴으로 많이 아프고 나서 컨디션을 회복하고 입맛까지 돌아와 “밥 더줘” 하는 찬종이,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너무 즐거워하는 도연이, 치과치료하면서 잇몸에 주사 맞았는데도 울지 않았다면 “나 잘했지?” 하는 이쁜 희영이, 팔씨름에서 대단한 힘을 보여준 우리 다안이, 마늘 까기의 달인! 무슨 일이든 끝까지 집중을 잘하는 주하, 불안불안하지만 웃음을 주는 별꽃방 분위기메이커 민소, 책읽기를 좋아하고 다정다감한 연수, 찬종이형을 너무 좋아해서 찬종이형이 되고 싶다는 귀염둥이 영윤이, 놀이를 만들고 놀이를 즐길 줄 아는 지웅이~~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입김을 모락 모락 내며 겉옷 지퍼를 꼭꼭 채우고 모자를 쓰고 장갑을 끼고 마스크에 위머까지 중무장을 하고서 터전 벽화 앞에 모인다. 손이 뽀뽀 발이 뽀뽀 나들이에서 놀 때는 추운 줄도 모르면서 터전 문을 들어서며 “아, 천국 같다. 맛있는 냄새도 솔솔 나고” 하는 모습을 볼 때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다^^



양지꽃방

12월 교육평가 및 1월 교육계획

백은주(씩씩한, 보리)

예년이라면 이달 12월이 아이들의 졸업식 달이 되었을 텐데, 이번엔 아직 2달의 여유가 더 있음에도 그간 아이들과 함께 한 시간들이 많이 아쉬워지는 요즈음이다. 아이들의 식습관, 스스로 옷을 갈아입고 스스로 이부자리를 정리하는 것 등등, 한 살을 더 먹는 애들을 보면 이런 기초적인 습관을 길러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아이들이 앉았을 때 높이가 높은 책상들은 치우고 낮은 책상들을 들여놓은 뒤, 밥을 먹을 때 아빠다리를 하도록 하였더니(아이들은 부처님다리라고 부른다.) 애기는 자유롭게 하나 설치하는 것이 줄어들었다. 점심 후 양치하는 습관은 거의 몸에 밴 것 같은데, 칫솔의 위생상태는 좀 더 신경써야 할 것 같다. 낮잠 자기 전후 스스로 옷을 갈아입는 것은 다들 잘하는데, 겨울옷은 입고 벗을 때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낮잠 시간에 아이들의 수면을 도우고자 커튼을 이중으로 쳐서 냉기도 막고, 빛을 차단하여 방안이 조금이라도 더 어두워지게 하였다. 잘 자고 일어난 아이들은 오후살이도 그만큼 더 편안해보여 좋은데, 터전의 겨울은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무척 춥다. 옷을 벗고 자리에 누워 춥다고 뒤척이는 아이들을 보면 참 많이 미안한데, 그래서 지금의 이불보다 보온성이 더 좋은 솜이불 같은 것도 환영이다.

이달엔 환주네와 오빈네로 집나들이를 다녀왔다. 환주네로의 나들이는 윤아 엄마가 대신 안주인을 해주셔서 편히 놀다가 왔으며, 오빈네로의 나들이는 집 앞 강변의 잔디 위에서 아이들이 잘 놀다왔다 한다. 두 집에 감사드리며 또 우리들을 초대해줄 집을 기다린다.

얼음이 팡팡 언 서당지 연못가로의 나들이는 놀이터만큼이나 아이들이 좋아해서 한 주에도 몇 번씩 다녀오고 있는데, 연못가에서 얼음을 타거나 깨고 놀다가 한쪽발이 빠지는 아이들이 많아 여벌옷을 터전에 갖다 놔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마다 빠지지 않는 김장 담그기는, 우리 텃밭에서 배추를 뽑아 나르고, 소금에 절여진 배추를 한쪽씩 양념에 버무렸다. 버무리면서 한쪽씩 입에 넣어줬더니 호호 맵다 하면서도 잘 먹었다. 그날 점심을 직접 담근 김장김치와 삶은 돼지고기로 배추쌈을 싸먹었는데 아이들도 잘 먹고, 그 맛이 일품이었다.

느긋하게 낮잠을 자고 난 후의 오후살이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이를 선택하고 있는데, 바깥에선 축구를 즐겨하고 있다. 한번은 신나게 공을 차고 있는데, 윤서가 다가와 편지라며 내밀었다. 펼쳐보니 X이런 표시가 돼있어서 물었더니 축구금지란다. 아이의 행위에 무슨 뜻이 있었을 터인데.....편지를 도로 받아가더니 “프랑스 사람 집에 낚였어”라고 한다. 터전 맞은편 원룸에 사는 프랑슈유 학생의 우편함에 넣어 둔 모양이다.

이달엔 성탄절이 있어 담금초 만들기를 하였는데, 길다란 심지를 뜨거운 밀랍에 넣었다 뺏다를 여러 번 거듭하여 만들었다. 어


느 정도 굽기의 담금초가 만들어지면 형태를 잡고 마무리하는데, 윤서는 초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보리, 이만하면 (굽기가) 충분해?”라고 물어, 아이의 어휘력에 또 한번 놀랐다.

얼마 전부터 선생님들이 함께 만들기 시작한 인형들을 한데 모아 인형 탄생식-터전에 새 친구를 맞이하는 의식을 치렀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놀이감 이름하여 ‘손끝이 따뜻해지는 놀이감’을 선생님들과 함께 만들면서 참 즐거웠으며, 아이들도 인형을 터전에 맞이하는 의식을 치름으로써 더 소중하게 잘 데리고 놀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컸는데 그 바람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꽃민소는 요즘 밥을 잘 먹어 그 이름만큼이나 너무 예쁘고, 하민은 열기 모듬할 때 머루의 풍물소리에 흥이 나는지 폴쩍폴쩍 예사롭지 않은 춤을 추곤 한다. 유민은 나들이 나갈 때의 저항감이 많이 줄어들었고, 나들이 나가서도 현민, 환주, 오빈 등과 뛰고 달리며 활발하게 논다. 그 예쁜 눈망울로 언제나 웃음을 주는 규언은 나무 블럭을 모양대로 정리하는데 남다른 집중력을 보이는데 이유인즉 선생님께 칭찬받기 위해서라고 하여 엄마와 보리가 같이 웃었다. 밥을 먹다가는 “ㄹ밥을 먹을라 카는데 밥이 없다 옹헤야~~~”라고 노래를 불러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 이불을 먼저 펴달라 하길래 그림 방을 닦아달라고 하였더니 물이 푹푹 흐르는 걸레로 온 방을 물바다로 만들어놓고.....아이들로 인해 참 웃을 일이 많다.

네 살 아이들과 하루를 지내는 날은, 바구니 속의 옷과 잡동사니들을 모두 꺼내 방한 칸에 쌓아놓고는 그 속에 한명씩 들어앉

아 기차놀이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언니오빠들이 모두 나들이 나가고 터전에 아무도 없으면, 작은 아이들이 마치 저희 세상인양 이리저리 떼로 몰려다니며 노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아이들이 저만큼 컸구나!’ 라는 생각에 감동이 된다.

매달 아이들과 지낸 이야기를 쓰다보면 ‘아! 이달도 잘 살았구나. 이것이 모여 일생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아이에게도 선생님에게도 부모님들에게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터전의 아이들이 모두 밝고 건강하게 쑥쑥 커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제비꽃방

12월 교육평가 및 1월 교육계획

황태순(씩씩한, 벚꽃)

◆ 방구성원

5세 : 이윤서, 김지호, 장문경

6세 : 김현동, 이시훈, 박찬홍, 안혜승

7세 : 최장민, 정수아

◆ 생활목표

기본생활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되도록 하자.

- 청결(이 닦기, 손 씻기, 세수하기)
- 정리정돈(내 바구니정리, 스스로 옷 입고 벗기, 놀고 난 자리 치우기)
- 식습관(음식의 소중함 알기, 반찬 골고루 먹기)

- 예절(반갑게 인사하기)
- 안전한 터전 생활(계단 조심, 실내에서 걸어 다니기, 교구 안전하게 사용하기)
- 친구관계(우리 방 친구들 뿐 아니라 터전 형, 아우와 모두 사이좋게 지내기)
- 교사와 아이(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아이들이 편하게 기댈 수 있도록 한다.)

◆ 김정일의 사망 소식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중학교 때 김일성 사망을 듣고, 지금 그의 아들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아!! 내가 커다란 흐름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지...’하며 알 수 없는 긴장감도 든다.

벚꽃이 휘날릴 때 본 쪼그맣던 아이들 모습이 향아리 째째 언 얼음을 힘주어 깨뜨리는 부쩍 자란 지금, 계단 난간을 붙잡고 올라가던 아이들이 총총 거리며 잘도 오르고, 아무 거리낌 없이 덩석 안기고, 투정하고, 고자질하러 달려오는 모습이 친근해졌다.

이 아이들이 크면 어떤 모습이 될까? 또한 나도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할까? 궁금하고 설레고 기대도 된다. 결혼과 출산을 하진 않았지만 만감이 오고 가는 부모님들의 감정을 쪼매 경험 해 보았다면 건방진 걸까?

◆ 하루생활

아침에 오면 사방치기 하는 소리가 찌렁찌렁하다. 1층에 모자라 2층 별꽃방까지 그려놓고 나니 층에 아이들 많으면 알아서 2층으로 올라간다. 규칙을 정하더니 어찌나 삼엄하게 감시를 하는지 알짤 없이 아웃이다.

또 한 권에선 뜨개질과 바느질하는 손놀

림, 얼마 전에 시작한 밀납으로 담금초 만들기를 하고 있다. 풀쩍풀쩍 뛰다가도 어느 순간 조용히 앉아 있다.

다른 방은 누구 집에 나들이 가는데 우리는 왜 안가? 하는 아이들의 항의에 방모임 때 요청을 하였더니 문경이 집에서 스타트를 끊어 주셨다. 그날따라 날씨가 고맙게도 굉장히 추웠고 수아는 문경이의 손을 꼭 잡으며 누나의 사랑-평소에는 손 안 잡음 -, --을 베풀었다. 아이들은 모두 장난감과 물아일체가 되어 놀고 이렇게 평화로운 나들이를 본 적이 드물 만큼 잘 놀다 왔다. 문경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썸썸~”-아이들 표현-

그동안의 점심시간은 잔반이 많이 남고 밥을 먹고 난 후 자리에 밥알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쪽 뺨은 다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다. 그래서 앉는 자세부터 바르게 - 양반다리 -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한 달이었다. 처음엔 잔소리처럼 아이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해해서 밥을 먹는 등 마는 동이었지만 확실히 효과는 크다.

또 제비꽃방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어찌나 목소리가 큰지 함께 먹는 다른 방 친구들이 좀 조용하자 할 정도여서 옆 친구에게 들릴 정도로만 살살 얘기하자고 말하고 있다.

식사 후 이 닦기는 습관으로 되어 있다. 가끔은 일일이 닦아주기도 하였지만 밥을 먹는 아이들을 보다보면 이 닦는 아이들을 다 챙겨주기가 힘들어 잘 닦았지? 하고 말로 확인할 뿐이다. 좀 더 꼼꼼히 챙겨야겠다.

낮잠은 대체로 잘 자는 편이고 일어나서 옷을 스스로 잘 입는다. 날씨가 추워지고 제비꽃방이 다른 방보다 추워서인지 따뜻한 이불 속에 한참을 있고 뒹굴거리기도 한다.

아이들이 놀다보면 늘 다툼이 있지만 그 속에서 일단 먼저 이야기 해보는 것이 많이 바뀐 모습이다.

다툼이 일어나면 일단 싸우고 보는 아이들 이었지만 요즘엔 이야기를 먼저 해보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어서 좋고 놀이와 이야기 등 공통의 관심사가 많이 늘어나서 아이들이 더욱 친해지고 있는 것 같다. 서로 도와주는 일도 자주 있고 도와주는 아이나 도움을 받는 아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서로를 챙겨 주려는 배려들을 느낄 수 있다. 행동 보다는 말을 먼저 하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 꾸준함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고 나를 돌아보게 된다.

11월보다 아이들이 덜 아팠지만 지호가 3주 가까이 터전에 나오지 못해 많이 걱정했다.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지호가 왔을 때 더 반겨주고 안아주고 잘 놀아줘서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에 고마웠다.

◆ 1월 계획은 활동 일정을 참고 해 주세요.

◆ 우리 모두 즐거운 날(6세-레고방)

구성원 : 김현동, 이시훈, 안혜승, 박찬홍, 박찬중, 박연수, 박주하, 김민소(별), 김민소(꽃), 문환주, 이현민, 권오빈

1일 - 김장 전 마늘 까기와 배추 뽑기(7세 형님들에게 질 수 없다며 경쟁이 붙어 빨리

꼭지를 따서 달라고 아우성 친 날)

8일 - 나들이로 연못가 당첨, 폭포길에서 잘려진 나무 가지들을 줍더니 갑자기 물고기(나뭇잎)들을 잡겠다고 함. 낚시터에서 낚아 올린 물고기를 말려야 한다며 또 다른 나뭇가지에 꼬챙이처럼 꼽으라고 벚꽃에게 시킴

15일 - 날씨가 많이 추워 나들이에 대한 의견이 다양함(엄마가 나가지 말라고 했어, 뜨개질 할 거야, 사방치기 할 거야, 모래놀이터에서 놀 거야). 나들이를 강요할 수 없는 날이라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하는 놀이를 함.

22일 - 동지의 유래를 알아보고 팔죽 새알 빚기를 함. 새알 만들기는 인원도 많고 나들이를 얼른 가고 싶다는 생각에 빛의 속도로 만들어냄. 그러나 점심 때 몇몇 아이들은 먹기를 힘들어했음. 만들기 후 연못가 나들이(얼음이 얼었나 안 얼었나 폭포길을 일일이 탐색하고 발로 밟아 확인함, 연못가 입구 얼음을 깨뜨려 나르는 놀이)

◆ 김장하기

덩치만한 배추 뽑기와 몇 개씩 붙어있는 마늘을 경쟁적으로 까며 김장 준비를 도왔던 씩씩이들.. 그리고 아마들이 오셔서 배추를 자르고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바르고 하는 전 과정을 아이들은 놀면서 보았고, 그 본 것을 바탕으로 교사와 아이들은 남은 양념을 배추에 정성껏 묻히고 수육에 싸먹음으로써 며칠에 걸친 김장로드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추운 날 많은 고생을 해주신 아마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치 잘 먹겠습니다.^^

◆ 12월 아이들 이야기

	위생 및 정리정돈	식습관	관계 및 놀이
김지호	아기 목소리로 “옷 입혀 줘.”하거나 먹여달라고 할 때가 있다. 바구니 정리를 잘한다.	젓가락질 사용이 능숙하고 먹지 못하는 계란을 제외한 다른 반찬은 모두 골고루 잘 먹는다.	문경, 규언이 지호가 오면 안아주고 가장 반갑게 맞아준다. 주로 방모임 때 갖고 온 곰돌이 인형을 갖고 논다.
이윤서	예전에는 줄 하나 빼돌라거나 옷이 조금 젖어도 예민한 편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많이 묻히고 적시고 양말을 빼돌리게 되어 불편하지만 않으면 오케이다. 까칠함이 많이 사라진 듯하다.	좋고 싫은 음식이 분명한 편 - 질긴 음식(오징어)이 나오면 싫어함 - 이다. 식사 시간이 늦다.	다양하게 논다. 사방치기 할 때는 그 무리들과 게임을 하고, 방 아이들이 같이 놀이를 할 때도 끼여서 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다툼이 생기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장문경	다른 친구들에 비해 단정한 편이다. 옷을 입을 때 벗을 때 짹짹 잘 펴고 입고 매무새를 가다듬는다.	많은 양을 한꺼번에 입에 넣고 오래 씹지 않고 몇 번 만에 꿀꺽 넘긴다.	목소리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크다. 숨기, 잡기놀이 등의 활동적인 놀이를 또래들과 같이한다.
김현동	놀 때 방해되지 않는 소매 길이로 접어줘야한다. 낮잠 때 여전히 이불을 빨아서 축축하다. 바구니 안에 여러 가지가 많지만 정리가 잘 된 편이다.	옆자리 친구들과 얘기나 놀이를 하거나해서 지적할 때가 있다. 식사 시간이 대체로 늦으나 비빔종류의 식사가 나왔을 때는 먹는 속도가 빠르다.	요즘은 사방치기를 할 때 가장 눈을 반짝거린다. 6세들과 주로 놀이를 한다.
박찬홍	옷 입고 벗을 때 매무새를 가다듬고 나름 입는 방식이 진지하다. 깔끔하고 양치나 씻기를 잘한다.		다른 친구들을 놀리는 일을 한 번씩 한다. 예전에는 누가 하면 따라했는데 먼저 주도적으로 할 때가 있다.
이시훈	스스로 정리정돈을 잘한다.	식사량도 많고 잘 먹는다. 가끔 이야기를 해서 산만해지기도 한다.	싸우는 일이 드물긴 하지만 다툼 때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인지 주로 많이

			운다.
안혜승	정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느리지만 나름 방식이 있고 이유가 있다.	식사량이 많고 주로 반찬보다 밥을 많이 먹어 끝에는 반찬만 남겨 먹을 때가 있다.	사방치기, 인형놀이 등 다양한 놀이에 관심을 갖고 어울린다.
정수아	터전에서 화장실 가는 것을 못 본 것 같다. 손씻기, 이닦기가 습관화 되어있다.	식사시간이 빠르고 밥을 먹는 것에 집중한다.	축구의 승부에 많이 신경을 쓴다. 함께 놀면 방해인지 도움인지를 잘 파악하고 놀이에 끼워준다^^;; 동생들의 뜨다만 뜨개질을 도와준다.
최장민	더운 것을 못 참아서 추운 날에도 히터를 자주 끈다. 아토피가 많이 좋아졌지만 한번씩 세계 굶는다. 식사한 후 이닦으라고 이야기를 해준다.	먹는 양도 많고 빠르다. 천천히 먹기와 먹을 수 있는 양만큼 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동생들을 한번씩 툭 치고 갈 때가 있다. 조용한 놀이를 할 때 주로 7세들과 놀지만 사방치기나 활발한 활동은 6세들과 어울린다.



주방

12월 교육평가 및 1월 교육계획

노승복(씩씩한, 나비)

내년 한해 음식인 김치, 김장하기를 아이들도 함께 했습니다. 텃밭에서 묵은 주며 잘 키운 배추를 추운 날 나들이 가기 전에 한 포기씩 뽑아 나르고 다음날엔 마늘도 열심히 깨끗이 깎았습니다.

다듬고 소금을 치고 씻고 버무리기...아마든 덕분에 김장도 무사히 마쳤고, 작년에 비해 양도 엄청나게 많아서 찌개, 전, 김치만두 등 넉넉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김치를 활용 할 수 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1인당 작은 배추 조각을 하나씩 주어 위생장갑을 끼고 배추를 한 잎씩 넘겨가며 양념을 바르도록 하고 버무리기 시작했다. 커다란 쟁반에서 작업 했지만 책상 위, 옷소매 등 여러 곳에 고춧가루 자국을 묻히고, 버무린 김치를 맛보는 신나는 활동이었다.

작은 조각 한 개가 부족해 더 버무리고 싶다고 더 달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양을 준비해도 될 것 같다. 또한 내년에는 위생장갑보다는 각자 집에서 고무장갑을 준비해서 팔목까지 올려 활동을 하면 좀 더 자유로운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간장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메주 쫄기 활동도 했다. 메주의 쓰임새부터 알아보고

출근해서 바로 콩을 삶기 시작해서 오후 낮잠을 자고 일어나는 7시간동안 노란 콩이 붉게 될 때까지 삶았다. 삶은 콩을 가지고 각자 집에서 가지고 온 절구를 이용해 빵아서 틀 대용인 우유 곱에 꼭꼭 눌러 담아가며 네모 모양을 완성했다. 현재 주방에서 말리는 중이고 곰팡이를 잘 띄워서 내년에 간장 만들 때 사용할 것이다.

동지팔죽! 동지는 일 년 중 가장 밤이 길고 낮이 짧다는 것과 이날이 지난 후 다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새해를 알리는 절기라고 알려주었다. 또 동짓날 붉은 팔죽을 먹고 나쁜 기운의 막아 액땀하여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해진다고 가르쳐 준 뒤 새알을 빚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찍 삶아둔 팔죽으로 앙금을 내어 준비 하는 과정도 약간 보여 주었다. 점심으로 팔죽을 준비해서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방에 가지고 가서 배식을 했다. 나들이 다녀온 후 손을 씻고 팔죽이 든 솥을 보고 와~~많다, 맛있겠다, 예상외로 한두 번씩 더 먹은 아이들도 많았다.

요즘 매일 일찍 등원하면 따뜻한 차를 준비 해 준다. 그래서 유자를 추가로 더 구매했는데 나비 혼자서 힘들어서 유자 썰기를 희망 하는 아이들 데리고 준비했다. 그래도 지난번에 한번 경험이 있어 능숙하게 과육의 씨를 빼고 잘게 썰었다. 장난도 치지 않고 섬세하게 칼솥씨 발휘했다. 나들이를 일찍 다녀온 꽃마리방 아이들이 설탕을 넣고 버무리고 유리병에 넣었다. 손에 묻은 설탕

맛과 유자의 새콤한 맛을 활아먹으면서 마무리했다. ㅎㅎ

일찍 등원하면서 몇 명이 도시락을 준비해오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간식을 먹게 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아이들이 얼큰한 콩나물 김치국, 닭계장, 처음으로 돈육등뼈를 사용해 준비 한 감자탕(잘 말려둔 무청 사용), 고춧가루가 들어간 국물을 좋아했다.


복어국, 무국 등은 좋아 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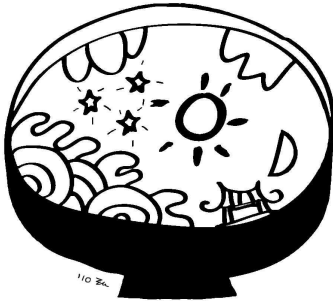
닭볶음탕을 준비 하며 다른 때보다 고춧가루 양을 많이 했더니 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꽃마리방은 물을 자주 마셔 미안했다.

오후간식은 김치랑 함께 먹은 찐 고구마.

주방에 무가 부조된 것이 많아 처음으로 무전을 준비했는데 먹어보기 전엔 감자전 마전 같다고 하더니 시원하고 구수해서 간장에 맛나게 찍어 먹었다. 잘 익은 누런 호박(부조)과 쌀가루를 이용한 버무리, 새알이 들어간 노란 예쁜색의 호박죽도 반응이 좋았고, 튀기지 않고 살짝 데쳐 준비한 마파두부 소스가 스파게티와 비슷한 냄새가 난다면서 인가 좋았고 두부를 잘 먹지 않던 환주도 더 먹었다. 이번 달엔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이 많아서인지 잔반이 전혀 나오지 않을 때도 종종 있어 기분이 좋았다.

다음 달에도 잔반이 나오지 않게 아이들을 다독이고 맛난 음식 준비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오미자 엑기스, 쿡, 인절미, 스프 고명 등 음식을 부조 받아 고맙게 잘 먹었습니다.^^ 



씩씩한 맛있는 1월 식단

	월 2	화 3	수 4	목 5	금 6	토 7
오전간식						
점심	씩 씩 한 겨 울 방 학 !!!					
오후간식						
	9	10	11	12	13	14
오전간식	떡국	감자스프	스크램블	갯죽	양념순두부	
점심	들깨미역국 닭야채볶음 시금치나물	굴 미역국 돈육 장조림 콩나물무침	김치볶음밥 맑은 무국	시래기 된장국 무생채 겉절이 고등어구이	소고기국 멸치볶음 콩자반	
오후간식	지호생일터	채희생일터	찐고구마	찐만두, 과일	소보루빵, 효소	
	16	17	18	19	20	21
오전간식	야채크림스프	명콩죽	멸치주먹밥	물만두국	콩나물겉시기	누룽지탕
점심	동태국 연근조림 도라지초무침	돈육김치찌개 콩나물무침 두부간장조림	짜장밥 맑은 된장국	청국장 메추리알장조림 모자반초무침	감자탕 무나물 미역줄기볶음	오무라이스 맑은장국
오후간식	궁중떡볶이	절편, 사과	두부김치	현미가래떡, 조청	토스트, 오디쥬, 두유	
	23	24	25	26	27	28
오전간식	설 날 연 휴		야채주먹밥	조랭이떡국	도토리묵채	
점심			오징어채덮밥	채첩국	고등어무조림	
오후간식			수제비	찬치국수	모닝빵, 우유	
	30	31				
오전간식	단호박죽	고구마스프				
점심	맑은된장국 삼치구이 숙주나물	순두부찌개 멸치명콩조림 브로콜리, 초고추장				
오후간식	구운고구마, 효소	김치전				

해바라기 방과후 12월 교육평가 및 1월 교육계획

김병현, 류선희(해바라기, 토토로, 포도)

♥ 해바라기 12월 교육평가

12월은 해바라기 마당을 준비하는 달이다. 포스터도 만들고 초대 카드도 만들고 현수막도 만들어서 해바라기 마당을 어린이집 동생들에게 선보이는 자리인 것이다. 아이들은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교사의 생각과 의지가 아이들에게 보여 지면서 우여곡절을 거쳐 해바라기 마당이 준비되었다. 특별히 반복된 연습과 긴장감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미있어하고 평소에도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큰 부담감 없이 준비 할 수 있었다. 막판에 접어들면서 자기들끼리 연습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방과후 아이들이 더 재미있어 했다. 아마 교사가 막무가내로 시켜서 했다면 아이들의 성의 없는 무대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해바라기 마당

해바라기 마당에 기획 의도는 가벼운 마음에서 시작했다. 우리 방과후 아이들이 평소 생활하는 모습과 있는 삶 그대로를 보여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크게 많은 연습을 하지 않고도 재미있는 무대를 보여주하고자 했던 것이다. 우리아이들이 무대라는 생각에 많은 연습과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평소 하고 있는 것을 조

금 더 다듬어서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물론 관객을 많이 모아서 크게 벌일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어린이집 동생들을 불러놓고 방과후 형님들의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래서 궁급하고 동경하는 방과후의 모습을 동생들에게 소개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처음엔 4학년 여자아이들의 댄스를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아이들과 이야기 해 보았지만 여자아이들이 긴장감을 갖는 것 같았다. 자기들 끼리 있을 땐 잘 나오던 춤이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가면 제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급 변경한 것이 리코더 연주이다. 아이들이 곡을 정하고 연습하는 것 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해냈다. 서로 부담주지 않고 틀려도 격려하면서 연습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더욱 눈에 들어왔다.

3학년 남자아이들이 개그를 준비했다. 방과후 안에서 유행하던 감사합니다. 코너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을 때 남자아이들이 처음에 어색해 하다가 흥이 넘치는 재혼이가 감사합니다를 너무 재미있어 해서 그대로 해 보기로 했다. 원래 어린이집 상황을 감사합니다로 만들어보는 것이 어떠냐고 넌지시 물었지만 아이들은 자기들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 했다. 결국 해균이를 중심으로 대본을 짜고 해균이가 집에서 워드를 쳐서 복사까지 해 왔다. 문제는 병준이었는데, 실

전무대에서 천연덕스럽게 자기 몫을 소화해냈다. 그 모습이 더 웃기고 재미있었다. 다양한 소품들을 이용해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가장 재미있었던 그리고 기억에 남았던 무대였다.

2학년 무대는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남자 아이들을 중심으로 카프라 쌓기가 주어졌는데, 일단 조용하고 집중하기를 좋아하는 종인, 범석, 찬우, 승현이가 카프라 마을 만들기를 했다. 학교를 마치자마자 터전에 와서는 언제 만들기를 시작 하나고 보채기까지 했다. 결국 열심히 만든 카프라 마을은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자신들은 이거 만들 수가 없는데 방과후 형님들은 정말 잘 만든다는 부러운 시선을 계속 보냈다. 어린이집 아이들이 한번 만져보고 싶은 마음이 넘쳐났지만 지키고 있는 찬우의 시선 때문에 지켜만 봐야했다. 나름 전시실 안에서 균기반장 역할을 소화한 찬우는 카프라 지키기에 여념이 없었다. 미션 홀라후프는 하랑이와 채환이 그리고 박희연이 참가했고 종인이가 미션을 주는 형식이었다. 누구하나 시켜서 하기 보다는 본인들이 해보겠다고 나섰다. 종인도 미션을 주는 역할이 마음에 들었는지 미션을 20가지나 즉석에서 만들어냈다. 방과후에 다니면 누구나 홀라후프를 잘하게 된다. 아이들끼리 경쟁적으로 연습한 결과이기도 하다.

1학년은 무엇을 할까 고민이 많았다. 특별히 모든 아이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학교에서 배운 동시 낭송을 하기로 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으로 입체 낭송을 하는 것이 어떨까하고 아이들과 이야기 하고 연습을 했다. 아이들이 원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교사의 목소리가 많이 들어간 코너이다. 동시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라 아이들 대부분이 외우고 있었다. 외우고 있으니 더욱 큰소리도 낼 수 있었다.

이러한 것은 학교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맛 배기로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들려주기로 했다. 총 4개의 동시를 4모둠으로 나누어 연기도 하고 낭송도 하고 번갈아 말하고 손동작도 넣었다. 예상보다 더 잘 따라와준 아이들이 평소에도 외우며 연습을 했다. 문영이와 혜준이는 채환이의 지원 아래 개별 연습도 많이 했다. 마지막에 눈 스프레이가 굳어서 눈을 뿌리지 못해 아쉬웠다. 찬희한테 맡긴 회심의 무대연출인데 미리 쏘아보질 못해서 실전에서 망하고 말았다. 그러나 1학년 아이들의 무대는 가장 연습 시간도 많았고 전체가 고루 참여하는 무대였다.

토토로는 별로 연습 없이 임한 터라 전체 무대 중에서 가장 무대 질이 떨어지는 무대였다. 다음에는 확실한 연습을 통해 제대로 된 무대를 보여주리라 마음먹어본다.

마지막에 거의 모든 아이들이 참여한 “커다란 순무”는 좀 흥분한 재홍이의 오버 연기와 해균이의 역할이 웃긴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고, 지환이가 마지막에 도와줘서 재미있는 무대로 끝낼 수 있었다. 돌발 상황도 있었지만 거기에 참여한 방과후 아이들이 본인들이 즐거워했고 어린이집 아이들도 함께 즐거워했다. 앞으로 종종 방과후에 어린이집 아이들을 초대해서 함께 꾸미는 재미있는 교류의 시간을 가져봐야겠다. 방과후 아이들도 무대서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말이다.

해바라기 마당을 준비하면서 무대 현수막과 카드 만들기를 동시에 진행했는데, 아이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느껴졌다. 카드는 원래는 하나만 만들기로 했지만 자기 주위에 여러 명을 줘야 한다면 여러 장을 만들었다. 당초 예상 시간을 훌쩍 넘긴 활동이었지만 아이들의 불평이 별로 없었다. 물론 만들기 자체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하나만

겨우 만들고 자기 불일을 찾아가는 아이들도 있었다.

현수막은 4모듬이 모여서 만들었는데, 근래에 보기 드문 협동심을 보여주었다. 일단 중심이 되는 고학년이 아이디어를 내면 동생들이 잘 따라주면서 괜찮은 작품들이 나왔다. 광목천에 그린 현수막을 연결해서 붙였는데 각 모듬마다 특성이 고스란히 드러나 정말 멋졌다. 아이들도 벽에 걸린 현수막을 보고 평가하면서 서로 다른 모듬의 작품을 칭찬해 주었다. 또한 모듬 활동을 하는데 다툼이 별로 없었던 활동이 되기도 했다.

무대에 올라가는 것들이 아주 특별한 무언가를 준비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연습해서 올릴 수 있다는 경험을 해본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된다. 살짝 떨리는 긴장감과 관객들이 쳐다보며 기대하는 눈빛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저마다 맡은 역할 속에서 소외 되지 않고 자신의 장점을 내 보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아이들이 방과후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배우는 것들이 하나의 좋은 공연의 꺼리들이 된다는 것을 아이들이 새삼 느꼈으면 좋겠다.

♥ 2011년 해바라기 연간 교육평가

1. 교육목표

- 1) 감성을 풍성히 키워나가는 방과후 친구들이 되자.
 - 자연을 통한 감성 일깨우기
 - 놀이를 통한 감성 일깨우기
 - 관계를 통한 감성 일깨우기
- 2) 세시와 절기를 통한 자연스런 삶의 흐름을 느끼자.
 - 절기 음식과 풍속을 알아가기

- 전통교육을 통한 삶의 모습 되돌아보기
-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

2. 들살이/자는 모듬

- 자는 모듬

2011년 한 해 동안 자는 모듬은 1회만 이루어졌다. 교사회 입장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는 모듬이 되길 바랬지만 아이들 개개인의 성향과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작용해 이탈 인원들이 점점 많아졌다. 그냥 원하는 아이들만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억지로 참여하는 아이들은 자고 싶지 않은데, 왜 해야만 하느냐는 반감도 있고, 집에서 자고 온 아이들의 부러움도 있었다.

또한, 교사들이 즐겁고 기꺼운 마음으로 자는 모듬을 기획해 내지 못했다. 사실 안하고픈 감정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계획에 있던 것을 왜 진행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교사가 마음을 내고 열의를 가지고 진행해야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011년에는 그런 마음들이 별로 들지 않았다. 아이들의 이탈과 교사의 이동 그리고 잦은 방의 변화가 교사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다.

- 들살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날씨의 영향으로 날을 다시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다. 물살이 개념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다녀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 3학년 들살이

고학년 들살이를 여름 방학 때 다녀왔다. 아이들의 반응은 좋았고 2박3일을 다녀왔다. 자전거를 길게 탄 기억이 아이들에게 많이 남아 있고 자유로운 저녁시간도 좋아했

다. 식사준비를 토토로가 하고 설거지를 아이들이 했는데 식사도 아이들과 분담해서 준비하는 게 좋을 듯싶다.

3. 용돈

2011년에는 용돈을 사용하지 않았다. 몇몇 아이들은 간절히 바라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용돈을 안 써도 아이들은 별로 개의치 않는다. 부모님들은 원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긴 했는데 포도랑 의논 하면서 용돈을 터전에서 안 쓰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 했다. 교사와 아이들 간에 불필요한 소모전이 상당히 줄어들기도 했다.

4. 자유놀이

올 한해는 아이들끼리 자유놀이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비슷한 성향의 아이들이 모둠을 만들어 노는 일이 많았다. 또한 함께 노는 마당놀이를 아이들의 선호해서 대규모 놀이가 진행되기도 했다.

5. 선택활동, 방별 활동

선택활동은 자주 한건 아니지만 원하는 아이들 위주로 진행되었다. 특히 포도와 함

께하는 가방 만들기, 바느질, 뜨개질, 직조 짜기 등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방별 활동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루어졌는데 방별로 어울려 놀기가 주를 이루었다. 가끔 방별로 나들이를 가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방별 활동은 다른 활동들에 비해 비중이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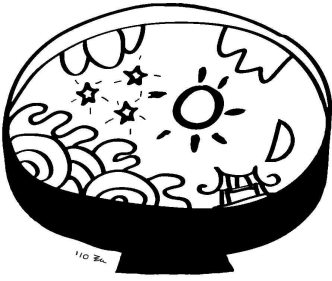
6. 등근 모듬

항시 등근 모듬을 했던 것은 아니다. 사안이 있을 때 마다 등근 모듬을 진행했는데, 대체로 토토로가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듣고 의견을 내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아이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아이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간단한 놀이 진행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오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고 평가해 봐야겠다. 얼마 전 사용해 보니 아이들이 말 안 해도 알아서 모여들었다.

7. 긴 나들이

자전거타기, 대구스타디움, 전시회, 건강공원, 천을산 



해바라기 맛있는 1월식단

월	화	수	목	금	토
2	3	4	5	6	7

점심

간식

	9	10	11	12	13	14
점심	배추된장국 오징어볶음 감자조림	들깨무국 어묵볶음 시래기조림	소고기무국 콩나물무침 계란찜	재첩국 두부조림 파래무침	순두부찌개 돈육메추리알 조림 양배추쌈	
간식	고구마맛탕	떡만두국	주먹밥	부추전	감자수제비	

	16	17	18	19	20	21
점심	북어국 시금치 무침 새우볶음	두부 된장국 고등어 무조림 버섯볶음	계란탕 김치볶음밥 계란 후라이	소고기 미역국 땅콩조림 미역줄기 볶음	김치찌개 김구이 야채샐러드	
간식	떡볶이	닭죽	삼각김밥	과일요플레	어묵탕	

	23	24	25	26	27	28
점심	설	연 휴	비빔밥 콩나물국	콩비지찌개 연근조림 계란말이	북어미역국 돼지불고기 야채쌈	
간식			핫케익	조랭이 떡국	피자	

	30	31
점심	어묵국 소세지 볶음 다시마 찜	김치 콩나물국 삼치구이 도라지오이
간식	짬뽕	무침 라면

씩씩한 터전 소식

정은주(씩씩한 민소, 영현 엄마)

1. 선생님들의 손끝이 따뜻해지는 인형 만들기

터전에 가면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인형들을 보셨을 거예요.

씩씩한 선생님들과 노을이(솔방울 어린이 집 명예조합원) 만나 '손끝이 따뜻해지는 인형 만들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예쁘고 다리가 긴~ 서양인형이 아니라 천과 털실로 만든, 정말 손끝이 따뜻해져 마음까지 훈훈하게 하는 인형들입니다.

아이들은 마치 인형들이 생명이 있는 듯 소중하게 안아보고 이야기 걸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아마들에게겐 잔잔한 감동이었습시다. 아이들에게 이런 따뜻한 놀잇감을 만들어 주신 선생님들에게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2. 김치 담그기

일년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김치 담그기를 12월 첫 주에 치렀습니다. 가정에서도 김장 담그기가 일년 중 큰 행사이듯이 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들 터전 김장을 위해 시댁 또는 친정 김장 일자까지 조정하면서 내 일처럼 참여한 덕분에 올해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밤늦게까지 또는 주말을 반납하고 터전에 나오셔서 작업 해 준 아마들 그리고 형편상 참석은 못했지만 마음으로 힘을 보태신 조합원들 역시 감사합니다.

3. 희영이 동생이 태어났어요

희영이 동생이 태어났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름은 범민이고요, 남자 아기랍니다.

태어나서 폐렴 증상을 보여 희영이 부모



님의 가슴을 풀어내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퇴원하여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범민아! 세상에 나온 걸 축하한다.

그리고 새로운 아기를 맞이한 희영이 가족들 축하드려요~


4. 터전에 부는 뜨개질 열풍

'씩씩한'에 뜨개질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터전에 가면 한쪽 구석에 삼삼오오로 옹기종기 모여 앉아 뜨개질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고사리 손으로 한 땀 한 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신 적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재미있는 것은 뜨개질에 여자아이들 뿐 아니라 남자 아이들도 동참하여 더 열심을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장민이는 놀라운 솜씨와 집중력을 발휘하여 '장민이의 새로운 발견이다'며 아마들 사이에 화제가 되기도 했답니다.

이러한 뜨개질 열풍은 아마들에게도 이어져 북한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희망의 목도리 만들기' 행사나 '세이브 더칠드런의 모자 뜨기'에 참여하는 아마들이 마실이나 모임에 가서도 뜨개질을 손에 놓지 않고 있습니다. 뜨개질이나 바느질과는 거리가 너무 먼~ 전, 마술처럼 뭔가를 똑딱 만들어 내는

아마들의 솜씨에 입 벌리고 감탄만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도전할 날이 있을라나? 

해바라기 터전 소식

임채희(해바라기 환승 엄마)

1. 따뜻한 희망 목도리 열풍~~ 구원투수 포도와 찬희모 등장

해균모와 소정모의 노력으로 시작된 희망 목도리가 씩씩한과 해바라기에도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희망 목도리는 법륜스님이 계신 정토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실을 사서 목도리를 짠 다음 북한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돈으로 기부를 하고, 또 품으로 한번 더 기부를 하는 뜻 깊은 행사입니다.

사랑의 실천이라는 좋은 취지 덕분인지 씩씩한의 7세와 교사회, 해바라기의 상당수의 아이들과 많은 아마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물론 몇 몇 아마는 자신의 저주받은 손(?)을 원망하며 참여하지 못한 점을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물론 좋은 의도로 시작했으나 실력 부족(?), 시간 부족(?), 끈기 부족(?)으로 완성되지 못한 목도리가 속출했으나 씩씩한 공식 '신의 손'이신 포도와 찬희모의 등장으로 제 날짜에 알맞게 완성되어 기부되었다고 합니다. 주로 포도 선생님은 해바라기 아이들의 작품을, 찬희모는 아마들의 미완성 작품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특히 찬희모는 거의 모든 회의 시간에 목도리를 갖고 와서는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작업량을 보여 보는 이들이 찬탄을 금하지 못했다는 소문입니다. 희망 목도리 만들기에 동참하여 훈훈한 사랑을 실천하신 모든 분들 복 받으실 겁니다.

2. 술 마시는 바비 인형은 누구?

해바라기 아이들이 별명 만들기(?)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수식어 + 별명'의 형식으로 만드는 것인데, 수식어는 본인이 만들고, 별명은 주변 아이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야구에 꽃혀있는 해균이가 '야구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말하면 누군가가 '앵그리 버드'라고 말하면 해균이의 별명은 간단하게 '야구하는 앵그리 버드'로 정해지는 겁니다. 물론 아이들이 별명 지을 때 별 고민 없이 말을 던지므로 왜 해균이가 '앵그리 버드'인가의 의미를 따지면 피곤해집니다. 아이들이 장난스럽게 즉흥적으로 툭툭 던지는 말만으로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별명들을 살펴보면, 그림그리는 사자(안혜준), 달리는 선풍기(김동현), 진 뺏기 하는 토마토(최재욱), 홀라후프 하는 다람쥐(최문영), 야구하는 너구리(박범석), 만드는 고릴라(최장범), 딱지하는 고릴라(신세하), 축구하는 오이(박찬희), 볼링 치는 썩소(오승현), 책 읽는 토끼(박희연), , 피구하는 지렁이(유환승), 춤추는 바비 인형(안채현) 등의 이상하고 난해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홀라후프 하는 다람쥐, 춤추는 바비 인형처럼 별명을 들으면 단번에 그 아이를 떠올리는 별명들도 있습니다.

해바라기 교육 소위 때, 토토로 선생님께서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으며 아마들이 재미있겠다며 그 자리에 한 아마의 별명을 지었습니다. 술 마시는 바비 인형(?)은 누구일까요? 참석한 아마 전체의 만장일치로 탄생한 별명입니다. 그 자리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하여 승현이에게 물어보았더니 대번에 맞추었다는 그 별명의 주인공은 찬우모입니다. 찬우모는 바비 인형이라는 말에 꽤 만족하셨고요, 나머지 아마들은 교육 소위 회의 때마다 술을 예찬하는 찬우모에게 적합한 별명이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3. 해바라기 영재(?) 탄생

“엄마,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차이가 뭐야?”

“엄마, 911 테러는 왜 일어났어?”

초등학교 2학년의 질문으로 꽤 수준 높은 질문입니다. 해바라기에 이런 질문을 하는 아이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십시오. 바로 술 마시는 바비 인형의 아들인 찬우군입니다. 이 말에 의심이 가시는 분은 해바라기에서 잘 놀고 있는 아이들 한 명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해바라기에서 젤 똑똑한 사람이 누구야?” 이 때 유의할 점은 꼭 1학년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입을 모아 “찬우 형.”이라는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장범이와 환승이는 “찬우 형아 정말 똑똑해. 아는 게 많아.” 라고 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의 존재를 믿는 찬우와 911 테러를 말하는 찬우 사이의 간극, 참 애매합니다~~~~~

4. 고양이 한 번 더 갈 걸~~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이후에 ‘군대’는 남자 아이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군대 가면 죽는다는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수 아이들이 침대에 누워 ‘군대 안 가고 싶어.’라고 말하며 눈물을 툭툭 흘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승현이가 획기적인 해결책을 찾았다고 합니다.

“엄마, 군대 꼭 가야 되지?”

“그럴 걸.”

“엄마, 그럼 같이 가자.”

“엄마는 여자라서 안 가도 되는데..”

“..... 그럼 고양이(승현이 아빠 별명)한테 같이 가자고 해야지.”

“아빠는 갔다 왔는데... 군대는 한 번만 가

도 되는데.....”

“아마 고양이는 한 번 더 갔다 올 거야.”

앞으로는 아들을 위해 군대 한 번 정도는 더 갔다 와야 “아~~ 아들 좀 사랑하구나.” 말 할 수 있을 듯합니다.

5. 그럼 내가 좀 곤란한데~~~


크리스마스 특집 개콘 재방송을 보고 있던 환승이와 아빠. 애정남에서 산타 할아버지에 대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선물이예요. 그럼 산타 할아버지가 있습니까아~~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부모님께 원하는 선물을 말하세요~~”

뭐 대략 이런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살짝 조마조마한 내용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그 코너가 끝날 즈음 환승이가 지나가는 말로 “그러면 내가 좀 곤란한데~~”하며 한 마디 던집니다. 순간 흐르는 정적~~~

이후 환승아빠가 간지럼 고문으로 그 말의 의미를 알아내려 했지만, 환승이는 “해바라기에서 해군이 형아가.....”라는 말만 흘릴 뿐 침묵과 말 돌리기로 저항했다고 합니다.

불편한 진실 : 해바라기 아이들 사이에는 과연 어떤 말이 오고 가는 것일까요?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기 위해 순순히 올해 착한 일을 적고, 가지고 싶은 선물을 말하던 아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식탁에서 안 되는 영어로 어렵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말하던 부모들의 대화와 밤에 몰래 차에 갔다 오는 아빠들은 과연 삽질을 한 것일까요? 

“공동육아가 아니었으면 얼마나 심심했을까?”

터전을 뺀 다른 무엇도 상상할 수 없는 가족

성경훈(씩씩한, 도연 아빠)

오! 은준이네를 다녀와서

산타할아버지가 온 세상에 행복이라는 달콤한 선물을 준 다음날, 은준이네에 모여 ‘행복’이라는 언어로 시작되는 그들의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보았습니다.

우리 조합에 사연 없는 부부가 없듯이 그들 또한 엉뚱한 스토리에 배꼽잡고 웃기도 하고 머리를 끄덕이며 맞장구도 치기도 했습니다. 아마 신규조합원이면서 가장 오랫동안 터전생활을 했을 것 같은 가족, 언제나 엄마 아빠가 함께하는 가족, 그리고 아빠가 엄마모임에서 엄마보다 더 자연스러운 가족.

이제 그 가족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보겠습니다.

2006년 4월, 그 부부는 만났다.

서로에 대한 환상보다는 질긴 운명의 끈이 연결되어 있을 것 같은 관계에서 그들은 만났습니다.

두 번째 만나던 날, 은준 아빠, 2대8 가르마에 실크무늬 정장의 나뭇잎처럼 멋진 모습으로 은준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녀! 전방 5미터 앞에서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만나던 날 그들은 술을 마셨습니다. 근데 이 남자! 인상으로 말술에 밥 말아 먹을 것 같은 사람이 취해서 흥얼흥얼~ 그 모습이 외모와 다르게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그녀는 그를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강공주와 바보온달처럼 은준엄마 주위에서 우려와 반대를 했지만 은준아빠의 강력한 사랑과 눈물로 그해 12월에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은준아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누군가 나를 사랑해줄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사랑이다’

그들은 결혼했고 그리고 만5년 동안 한번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생활했다고 합니다. 말이 쉽지 부부가 아침저녁으로 함께 한다는 것은 상상보다 더 힘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남들보다 더 싸우고 다투고 이해 하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글을 쓰면 만연체가 되고 말을 하면 둘러둘러 말하기를 잘하는 은준아빠와 말을 하기 위해선 논리가 우선이고 기승전결이 분명해야 되는 은준엄마, 그래서 이 부부는 그 5년의 시간동안 서로의 단점을 이해하고 장점을 긍정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부부 사랑하며 살아가다

결혼 전 은준네는 2006년 4월에 만나서 12월 결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매 시간을 함께하는 이 부부, 진짜 夫婦입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결혼했나요?

은준엄마는 본인과는 다른 서로의 성격에 끌렸다고 합니다. 은준아빠의 외모에서 풍기는 분명하고 똑부러지는 성격에 자신에게 없는 무언가를 채워줄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결혼하면 성격이 바뀌는 것 같대요. 실제로 은준아빠는 신발 하나 사는데 1년 반이 걸린답니다. 지난번 산 바지는 2년 동안 버려다 샀대요. 그러면서 줄기차게 옷이 없다고 은준엄마에게 불평을 한다고 하네요.

은준아빠는 은준엄마랑 살면 덜 해메고 살겠구나 생각했답니다. 본인이 삶에서 어긋날 수 있는 가능성이 은준엄마를 통해 절제될 거라 기대 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을 ‘사랑’이라 말하고 그 사랑의 다른 표현인 은준엄마의 매력은 ‘신앙’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직도 정리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은준엄마의 매력은 신앙이다. 뭘까요?

은준아빠는 장모님과 밤새도록 이야기를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슬픈 드라마 앞에서 장모님보다 먼저 눈물을 흘린답니다. 사실 은준엄마가 결혼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연애시기(2006년 4월말~12말)에 헤어지고 했더니 은준아빠가 술먹고 와서는 은준엄마 앞에서 울었답니다. 그 눈물에 은준엄마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결국 결혼했지요. 그런데 결혼 후에 속상해서 울고, 슬픈 드라마보고 본인보다 먼저 울어버리는 은준아빠를 보고 좀 놀랐답니다. 감성이 너무 풍부해서 지금도 <인간극장>, <동행>, <다큐3일> 등 휴먼다큐를 보지 않는대요.

은준엄마는 전국노래자랑을 못 본답니다. 그리고 토론프로에서 패널의 어설픈 항변을 보아도 두 손이 오그라진답니다. 완성되지 않은 어색함에 본인은 진저리를 친대요.

다를 것 같은 두 부부가 이야기를 듣다보니 ‘서로가 비슷하고 서로가 부족함을 많이 채우면서 살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분명

부부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귀공자 은준아빠 공동육아에 푹 빠지다.

은준아빠는 도련님입니다. 어릴 때부터 모든 사람의 중심에 은준아빠가 있었고 심지어 과외가 불법이던 시절 선행학습(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영어, 수학)을 했답니다. 그래서 중학교시절 무조건 100점이었대요. 그런 은준아빠는 선행학습의 폐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은준엄마가 제안한 공동육아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답니다.

그런 은준아빠의 터전생활을 본인 스스로 ‘체질’이라고 말하네요. 내 아이보다는 본인이 더 즐겁고, 아빠가 즐거우면 아이도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네요. 비록 복구에서 터전까지 오가는 것이 힘들지만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행복하답니다.

은준아빠는 시설소위, 은준엄마는 홍보소위를 하면서 터전생활을 집생활보다 더 많이하는 가족이지요. 그래서 신규조합원이라는 명칭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3~4년차 조합원의 포스가 느껴진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을 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공동육아가 아니었으면 얼마나 심심했을까?

은준네 감투를 쓰다!

조합에서 그동안 홍보이사를 못 구해 전전긍긍했는데 역시 은준네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 주었습니다. 집이 멀어서 어찌나? 하는 우려도 많지만 아이보다 더 씩씩한 부모들이에요.

오빈아빠가 물었습니다. 내년엔 홍보이사를 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러한 질문도 이 씩씩한 은준네에게 무용지물, 당근 행복하지요. 은준엄마는 ‘은준아빠는 행복할 건데 다른 조합원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러운 걱정을 하네요.

은준아빠는 홍보이사로서 새로운 각오를 다집니다. ‘내가 무얼한다고 조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려면 시간을 좀 더 내어야 될 것 같다.’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내면 터전이 그들의 집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당부도 잊지 않네요. 자신은 공동육아를 하면서 너무나 행복한데 주위에 공동육아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공동육아 사랑을 많이 해달라합니다. 홍보이사로서 벌써 작업 모드로 들어갑니다.

엄마와 아빠를 반반 닮은 은준이

은준이가 터전을 다니면서 당돌하게 씩씩해졌다고 하네요. 예전에 사람을 보면 엄마뒤에 숨기까먼저였던 아이가 이젠 대놓고 반항한다



네요. 그런 은준이에게 화를 내면서도 내심 기뻐합니다. 작은 변화에도 긍정을 표현하는 은준네를 보면서 은준이 또한 멋진 씩씩한 어린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은준이가 어떤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나?

아빠는 은준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은 없지만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던 아빠와 시골에


서 경쟁없이 자연과 교감하면서 감수성이 풍부한 엄마를 반반 닮은 듯한 은준이가 자기 기질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순리대로 살아가는 주체성 있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진행된 인터뷰에 질문하는 사람보다 더 신이 난 은준이네를 보면서 행복이라는 단어는 책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은준아빠, 엄마, 그리고 은준이의 해맑은 웃음속에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지금만 같으면 좋겠다”

맛있는 저녁에 과분한 술안주??까지 준비해주신 은준엄마와 아빠에게 감사하면 함께 하신 지호네, 윤아네, 그리고 오빈아빠, 동현

엄마, 채희엄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좀 멀었죠~

참, 은준아빠의 이야기는 들을 때는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은준아빠와 대화할 기회가 될 경우 잘 들어보세요. 결론은 어디에 있을까요?

은준이네와 장시간 이야기하면서 이 가족에게 터전을 뺀 다른 무엇도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터전식구들 올 지웅이 잘 키워줘서 고맙심더~~!!”

대한민국 대구 남자가 술자리에서 육아문제로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내 평생에 다시 만들어 질 수 있을지.....

최성우(씩씩한, 지웅 아빠)

글짓기로 시작해 글짓기로 끝을 맺는 이상한(?) 어린이 집의 원고청탁을 받고 지난 3월 신규조합원 소개글을 다시 읽어 보았다.(내가 쓰고 내 스스로 감동에 빠져본다.^.^) ‘한 발만 담그면 힘들어요, 두 발 꼭 담그세요’란 제목으로 시작하는 소개글을 보며 한 발이라도 제대로 담그거나 한 건지 회의와 아쉬움이 남는다.

뜬금없을지 모르겠지만 지웅 엄마와 나의 식습관을 비교하면 지웅 엄마는 한 번 가서 맛을 보고 검증된 식당을 자주 찾아가는 편이며 나는 맛집 사이트를 검색해 늘 새로운 곳을 찾아 헤매는 스타일이다. 이런 식습관처럼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는 내가 늘 먼저 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뒤로 빠져있고 이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일은 지웅 엄마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지웅이의 어린이집 생활도 그랬던 것 같다. 의욕적인 시작과는 달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지웅 엄마에게 의지하는 일이 많았던 것 같다. 글을 쓰는 지금, 지웅 엄마에게 고맙고 미안하다.

지웅이가 터전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족의 일상은 다분히 터전의 스케줄에 맞춰져 있었던 것 같다. 여러 가지 일정이 꼬이면 터전의 일정을 제일 우선 순위로 두고

움직이는 일이나 터전일정으로 인해 개인일정을 수정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는 짜증스러운 면도 없지 않았던 것 같다. 의욕적인 첫 출발과는 달리 시간이 갈수록 소극적인 마음으로 바뀐 터전생활을 두 팔을 걷어붙이고 솔선수범하는 선배조합원들의 모습 앞에서 나 스스로를 위축시키기도 했다.

1년이 채 되지 않는 터전생활이었지만 아이들에게 있어 공동육아는 현시점에서 내가 알고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육아 방법임을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육아에만 중점을 두고 접근한다면 부모에게는 쉽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실상은 공동육아에 앞서 공동체 생활이 우선되기 때문이기에 그러하다. 터전생활에 그냥 자연스럽게 동화되고 터전생활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 경지와 환경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공동육아는 부담이나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 나름의 의미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

떠나는 마당에 소회는 점 더 일찍 터전생활을 시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과 ‘이제 청소는 더 이상 안 해도 되는구나~’라는 반가움이 교차한다.

선무당이 사람 잡을지 모르겠지만 조합에 바라는 바를 몇 자 적어본다.

교사의 잦은 교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아 교육과가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거나 공동육아에 관심이 있는 교수들을 통해 공동육아에 열의를 가진 교사를 지속적으로 충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새로운 사업을 시도함에 있어 직업을 가진 조합원이 시설장을 맡아 일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므로 원장 전담제 등의 운영방식을 도입해 봄은 어떨까 감히 생각해 본다.

이제 이곳을 떠나면 대한민국 대구 남자가 술자리에서 육아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내 평생에 다시 만들어 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터전식구들 을 지웅이 잘 키워줘서 고맙심더~~!!

지웅이의 변화

자연 속에서 뛰어놀고 자연을 닮은 아이들과 함께 뛰고 뒹굴다 보니 나약하기만 했던 녀석이 어느새 상급 개구쟁이가 되어 버렸다. 곤충을 보면 겁부터 내던 녀석이 나들이를 나가면 이전 앞장서 잡기 시작하는 걸 보고 그 변화가 신기하고 만족스럽다.

그 남자의 터전생활

힘든 일 있으면 뒤로 빠지고 하기 싫은 일은 그녀에게 밀고.... 잔머리 쓰느라 흰머리가 부쩍 늘어난 한 해였다. 조합을 떠나고 나면 아빠들과 막걸리 기울이던 생각이 간절할 것 같다.

그 여자의 터전생활

직접 물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짐

작은 힘들었을 것이다.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비하면 훨씬 많은 활동을 요구받았을 것이기에... 그러나 터전식구들과 함께 한 시간은 그녀를 알게 모르게 성장시켜 주었을 것이며 앞으로도 그들은 그녀에게 많은 힘과 위안이 되어 줄 것이라 생각된다.



편집후기

[동현엄마]

새해가 밝았습니다. 세상이 살기 어려워질수록 서로를 보듬으며 재미있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살맛나는 이야기들이 소식지에 많이 실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희영엄마]

13번째 소식지를 만듭니다. 처음 생각했던 12번이 아니라 14번을 해야 2011년 홍보소위의 소식지 발행이 끝이 납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렇게 가끔씩, 생각했던 때가 '마지막'이 아니라 한두 번씩의 기회나 여유가 더 주어질 수 있다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재홍엄마]

바쁘지만 스릴있고 즐거운 2011년이었습니다. 2012년은 모두들 각자 삶의 주인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해이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지호엄마]

모두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

[은준엄마]

드려 새해입니다. 모두 복많이 받으시구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







월간 함께 크는 우리 아이 통권 제84호

- 발행일 2012년 1월 9일
- 발행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 발행인 변영숙
- 편집위원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홍보소위
오현석, 신미정, 권영현, 하윤주, 김덕춘,
장준현, 정은주, 박순희, 이옥희, 이승희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 64-6 (우)706-220
- 전화 053-791-6879
- 홈페이지 <http://cafe.gongdong.or.kr/siksikan>